

# 30대 워킹맘 1호 영입한 이재명 “뉴페이스 되어달라”

조동연 서경대 교수 공동선대위원장  
 후속 청년인재 수혈도 곧 발표  
 “국토보유세 국민 반대편 안해”  
 이번주 매타버스 전복·세종 방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30일 인재영입에 나서면서 선대위 개편작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30대 워킹맘’인 조동연 서경대 교수를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을 신호탄으로, 최근 영입을 완료한 외부 청년 인재들의 면면도 급격히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이 후보의 취약지대인 여성과 2030세대 청년층을 인재 영입의 핵심 콘셉트로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조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인선 발표식에서 “‘뉴 스페이스’(New Space)가 시대적 화두다. 교수님이 뉴 스페이스를 추구하는 것처럼 민주당 선대위의 뉴 페이스가 되어 주시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송영길 대표에 더해 상임선대위원장이 하나 더 늘면서 선대위가 ‘투톱 체제’로 전환한 것을 의식한 듯 “송 대표를 역류하시길 바란다”며 농담하기도 했다.

송 대표는 조 위원장 인선 배경에 대해 “20~30대 가정주부의 어려움을 이겨낸 롤모델을 찾고 싶었다”며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적으로 많은 논의와 설득을 거쳐 (조 교수)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저는 이재명 후보의 책 한 권을 조 교수에게 줬다. 읽어보고 필(feel)이 오면 결정해 달라고 했다”며 “민주당이 귀한 분을 모셨다”고 강조했다.

선대위의 1호 인재 영입이 마무리되면서 후속 인재 ‘수혈’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선대위 전면에 청년층 외부 인사를 포진할 계획이다. 선대위 인재영입위원회는 이미 영입작업을 마치고 명단 발표만 앞둔 것으로 알려졌다.

선대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래 걸리긴 했지만, 청년층 외부 인재 영입이 마무리된 단계”라며 “이들 모두 선대위원으로 참여해 2030세대 의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뒤인 내달 2일 선대위 조직개편 및 인선안을 최종 발표하고, 이른바 쉐신 선대위를 공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쉐신 선대위의 명칭은 ‘전국민 선대위’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대위 조직은 총 6~7개 본부로 간소화하고, 본부 간 신속·기동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주된 개편 방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 후보는 지난 29일 자신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국토보유세에 대해 “국민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공개된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중세는 사실 국민들이 반대하면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90% 이상의 국민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사실 (국토보유세)는 세금정책이라기보다 분배 정책이 더 강하다”면서도 “다만 이것에 대해 불신이 많고 오해가 많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얻는 전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태도로 정책을 펼치겠다는 방침을 거듭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금부터 공급 확대 정책을 더할 것”이라며 “(용적률 상향 등) 기존 택지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부동산 가격이 정점인 상태이고, 앞으로 금리 인상에 부동산 축소 국면이 올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폭락이 오히려 걱정되는 국면”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잘못한 일로 확인이 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심하게 비난받는 점에 대해 역을 생각할 일은 아니다”라며 “더 높은 지위와 더 큰 책임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을 돌며 민심 행보를 펼치고 있는 이 후보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4주차 일정으로 전북과 세종을 찾아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 전북 지역은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을 맡았던 정세균 전 국무총리의 고향이라는 점에서, 정 전 총리가 이 후보와 동행해 힘을 실어줄지 주목된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가 지난 30일 서울 중랑구 당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이재명 캠프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인선 발표’에서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조동연 교수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30대 워킹맘부터 ‘그알’ 교수까지 여야 선대위, 인재영입 경쟁 가열

뉴 페이스·젊은층 영입 분주  
 선대위 요직 2030 청년 배치

여야가 ‘30대 워킹맘’, ‘그알(그것이 알고싶다) 교수’를 영입해 선거대책위를 이끌게 하는 등 뉴페이스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올드보이’ 정치인들이 이번 대선에서 많이 거론되고 잠신한 젊은 인물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움직임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30일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조동연(39) 서경대 군사학과 교수를 영입했다고 직접 발표했다. 조 교수는 송 대표와 함께 ‘투톱’ 체제로 상임선대위를 이끄는 데, 선대위 요직에 군 출신 30대 여성을 파격적으로 앉힌 셈이다. 82년생 워킹맘에다가 군 출신인 조 교수를 영입, 이 후보의 약점으로 분류되는 청년 지지율을 반등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조 교수 영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기회 총량의 부족으로 청년 세대가 편 갈라 싸우는 참혹한 현실을 만든 데 대해 기성세대 깊이 반성하고, 반성을 넘어 책임질 때가 됐다”며 청년 문제 해결을 강조하기도 했다. 조 교수는 청년 선대위를 직접 주재하거나 송 대표와 함께 상임선대위

회의를 열어 청년, 과학기술 분야 정책 방향을 논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는 ‘그알 교수’로 이름이 난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사할린 강계 이주 동포의 손녀이자 워킹맘인 스트류카바 디나(30) 씨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이 교수는 여성과 아동 인권 분야 전문가이고, 1991년생인 디나 씨는 전날 출범한 윤 후보 직속 ‘내일을 생각하는 청년위원회’(이하 청년위)에도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윤 후보는 여론 조사상 20대 남성보다 20대 여성에서 지지세가 약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영입으로 풀이된다. 윤 후보는 지난 28일 청년회 출범식에서 디나 씨에 대해 “당당하게 우리나라에 자리 잡아서 활발히 사회 활동을 하는 워킹맘”이라고 직접 소개하기도 했다.

이밖에 1980~1990년대생이 주축인 35세 미만의 청년 7명이 선대위 주요 인사들의 ‘청년 보좌역’으로 임명됐다. 윤 후보 청년 보좌역은 김성용(35) 전 자유한국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이다.

이 후보는 이날 “청년과 함께 하는 2022 정권교체를 위해 오늘부터 국민의힘 청년보좌역을 공개 모집한다”면서 청년보좌역 공개 모집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

## 선거 앞두고...양도세 기준 완화·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기재위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정부 반대 의견에도 여야 합의  
 문화재·미술품으로 납세 가능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가상자산 과세 시점은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0일 전체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구간 물가 수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2008년 이후 9억원으로 유지됐던 고가주택의 기준을 12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세금을 면제해 주는 형태가 아니라 공시가격 인상으로 오는 시장의 반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결과”라고 설명했다. 애초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었으나 이날 회의에서 공포일로 시행 시점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 처리 및 공포 절차를 거쳐 내달 중순 이후 적용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에서 2023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전체 거래금액이 코스피 수준에 달함에도 과세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설정, 의제거액에 대한 결정과 양도차익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설정돼 있지 않다”며 거래소 간 이전 거래 문제, 과세형평성 등을 언급했다.

정부 측은 두 안건 모두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양도세 완화에 대해 “부동산 시장 불안심리를 즉시 자극하지 않을까 평정하 우려가 돼서 시기적으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9억에서 12억 구간, 양도소득세가 없어지는 구간은 주택에 대한 수요라든가 공급,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조금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면서도 “다만 법 개정 문제는 국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처럼 결정한다면 정부는 입장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기재위에서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을 거친 끝에 재적 14명 가운데 찬성 12명, 반대 2명으로 통과됐다. 이날 기재위에서는 또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을 물납(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으로 세금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가상자산공제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기준은 현행 연 매출 3천억원 미만에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영농상속공제 한도액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했다. 압류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고 가상자산의 매각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해 채납자 등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하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국제징수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연합뉴스

# 국가혁명당 ‘33정책’ 국가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습니다!

1. 18세 이상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 1인당 1억 원 지급 (대통령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지급)
2. 18세 이상 국민배당금 1인당 매월 150만 원 평생 지급 (대통령 취임 2개월부터 지급 시작)
3. 결혼시 3억 원 지급[결혼자금 1억+주택자금 2억 (무이자, 무보증, 무담보)] ( " )
4. 출산수당 5천만 원 지급, 연애수당 매월 20만 원 지급 ( " )
5. 육아수당 (유아 1인당 10세까지) 매월 100만 원 지급 ( " )
6. 3종 무료카드 지급(반려동물 무료진료 카드/안경 무료제공 카드/청소년 안심식사 카드) ( " )
7. 1억 미만 소액투자자 증권거래세 폐지
8.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지자체 의원 포함), 단체장 선거 폐지
9. 수능시험 폐지 (중·고교 전공 1과목만으로 대학 결정)
10. 여성가족부 폐지, 결혼부 신설,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

## 국민배당금 재원마련 방법

1. 국가예산 70%절약으로 400조 마련
2. 36가지 세금 통합으로 100조 마련
3. 재산비례 벌금제로 100조 마련
4. 고소득자 탈세 방지로 100조 마련
5. 특수사업자 500만 신설로 100조 마련
6. 양적완화로 코로나 긴급자금 마련

**국가혁명당**  
 02-783-8011~5